

‘마귀홈장’ 자존심 지킨 연변팀, 홈 3连胜 ‘만끽’

—점점 견고해지는 연변팀, 8 위로 훌쩍!



연변팀이 홈장 3连胜을 달성하며 이날 현장을 찾은 1만여 팬들과 기쁨의 순간을 함께 나누었다.

5월 11일 오후 3시에 연길시전민건강체육중심에서 진행된 2025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8라운드 경기에서 연변룡정커시안팀(이하 ‘연변팀’)은 심서련합팀(이하 ‘심서팀’)을 상대로 2대0 완승을 거두었다.

이 경기전까지 홈장 2连胜으로 분위기를 탄 연변팀은 4-1-2-3 전형을 가동해 리롱, 서계조, 왕봉, 박세호로 수비선을 구축했고 허문광, 호재겸, 도밍구스가 중원을 책임졌으며 최전방에는 황진비, 음바, 김태연이 배치됐다. 키퍼 장갑은 여전히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이는 구가호가 썼다. 김태연이 전진 배치되는 등 연변팀은 전술적으로 변화를 꾀했다.

이에 맞서 심서팀은 3-5-2 전형을 꺼내들었다. 한편 올 시즌 연변팀에서 심서팀으로 이적한 왕박호가 선발로 출전했다.

주심의 휘슬소리와 함께 두 팀은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이며 치열한

주도권 쟁탈에 나섰다.

서로 공격을 주거나 받거나 팽팽하던 분위기를 먼저 깨버린 건 연변팀이었다. 경기가 시작된 지 4분도 안되어 연변팀이 첫 코너킥을 얻었던 것, 도밍구스가 문전으로 길게 크로스를 올려줬고 침투해있던 황진비가 훌쩍 뛰어올라 머리로 방향을 바꾸며 헤딩을 날리자 공은 땅을 한번 짚고 그대로 골문으로 직행했다. 연변팀의 선제골이 터지는 순간이었다.

경기 첫 슈팅을 유효 슈팅으로 연결한 연변팀은 일찌감치 기선제압에 성공했다. 따라서 기세가 오른 연변팀의 파상공세가 펼쳐지며 심서팀의 문전은 수차 혼전을 겪었다. 황진비, 도밍구스의 슈팅이 아슬아슬하게 빗나가거나 키퍼에게 막히는 등 첫 골이 터지고 불과 15분 사이 연변팀은 5차나 되는 슈팅을 추가했다.

전반 중반에 접어들며 연변팀의 공세가 소강상태를 보였다. 연변팀은 수비망을 촘촘히 다지는 한편 추가골 기회를 엿봤다. 그리고 절호의 찬스도 두번이나 있었다.

36분경 상대 문전에서 연변팀의 정채로운 연계 플레이가 선보여지며 김태연이 자로 켜 듯한 짧은 패스를 치고 들어가는 도밍구스에게 찔러줬고 도밍구스가 키퍼와의 1대1 상황에서 시도한 슈팅이 허망하게도 높아 났다.

그런가하면 39분경에도 역시 도밍구스가 페널티 지역에서 상대 수비수를 따돌리며 패린 솟이 문대를 조금 빗나가며 진한 아쉬움을 남겼다.

추가 시간이 3분 주어진 가운데 연변팀은 집중력을 끝까지 발휘하며 전반전을 1대0으로 마쳤다.

연변팀은 전반전 그대로 후반전을 시작했다.

한풀 뒀던 심서팀은 후반 시작부터 라인을 올리고 공격 태세를 보였다. 48분경 심서팀이 프리킥 기회를 리용해 시도한 먼거리 슈팅을 구가호가 선방으로 쳐내는 등 연변팀은 안정적으로 자리를 지키고 차근차근 공격을 전개하면서 조금씩 분위기를 끌어왔다.

56분경에 연변팀은 포부스를 올리

고 음바를 빼며 첫 교체 카드를 썼다. 두 팀 모두 절대적인 기회를 창출하지 못하며 중원에서 눈치 게임을 벌였다. 와중에 연변팀은 김태연과 포부스의 문전 패스 런게가 몇번 나왔으나 포부스의 솟이 결정적인 한 방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68분경 연변팀은 한번에 두장의 교체 카드를 활용했다. 리세빈으로 허문광을, 천창걸로 도밍구스를 교체하며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

시간이 70분을 지나며 조금해진 쪽은 심서팀이었다. 교체 카드를 꺼내는 등 변화를 주며 공격에 힘을 실었지만 연변팀이 촘촘하게 쌓아올린 수비벽에 막히며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다.

반면 연변팀의 예리한 반격이 잇달아 연출되며 추가골에 대한 기대가 한껏 끓어올랐다. 그리고 그 중심엔 김태연이 있었다. 더불어 “김태연이 김태연 했다.”는 말이 저절로 나올 만한 순간이 연속 나오며 현장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날 경기 내내 칼같은 패스를 만들어준 김태연이 75분경 포부스가 측면에서 넘겨준 패스를 받아 손살같이 쇄도하더니 일순 먼거리 슈팅을 날렸다. 심서팀의 키퍼가 처낸 공이 대굴대굴 굴러가더니 골대를 맞고 튕겨나가며 아쉬움을 달래는 와중에 인종 1분도 안되어 다시 한번 비슷한 루트로 날린 김태연의 슈팅으로 키퍼도 손쓸 새 없이 추가골이 터졌다.

2대0으로 승기를 잡은 연변팀은 84분경에 리강으로 리롱을, 리석민으로 이날의 공신 김태연을 교체하며 굳히기에 들어갔다.

후반 추가 시간 4분까지 상대팀은 반격 의지를 보였으나 연변팀의 수비와 구가호의 선방에 막혔고 연변팀은 두 골 차 우세에도 마지막까지 기회를 틈타 공격을 이어갔다.

주심의 휘슬이 울렸고 현장이 환호했다. 연변팀은 최종 결과를 2대0으로 확정하며 ‘마귀홈장’에서 또 한번 승리를 이룩했다.

홈장 3连胜으로 상승세에 올라탄 연변팀은 5월 17일에 현재 순위 1위를 달리고 있는 중경동량룡팀과 원정에서 격돌한다.

/ 김기혜 김파 기자

경기후

황진비 :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 노력으로 팬들에게 보답하겠다

5월 11일 오후 3시에 연길시전민건강체육중심에서 진행된 2025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8라운드 경기에서 연변룡정커시안팀은 심서련합팀을 2대0으로 완파하며 기꺼운 홈장 3连胜을 달성했다.

경기를 마친 뒤 공동취재구역에서 이날 경기 첫 골의 주인공인 황진비가 취재를 받았다.

“오늘은 홈장 3连胜이 터진 날이다. 현장에 응원 온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라는 기자의 질문에 황진비는 “변함없이 우리를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팬들에게 너무 감사하다.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으로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축구팬들에 대한 고마움을 토로했다.

한편 홈장 3连胜 축포를 쏘아올린 이날 경기에 1만 4,000여명의 팬들이 현장을 찾아 응원전을 펼쳤다.

경기전 소식공개회에서 이기형 감



독 또한 많은 팬들이 현장으로 와서 우리 선수들을 많이 응원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는데 팬들은 연변팀의 ‘제 12 번째’ 선수 역할을 톡톡히 해내면서 안방에서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더불어 올 시즌 연변팀으로 이적한 황진비의 첫 골이 시원하게 터졌으니 연변팀의 상승세와 함께 황진비의 시즌 2호 골도 머지 않아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 김기혜기자

감독초대석

“전술 변화를 선수들이 잘 리행해줬다”



5월 11일 오후 3시, 연변룡정커시안팀은 연길시전민건강체육중심체육장에

서 진행된 2025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8라운드 경기에서 심서련합팀을 2대0으로 물리치고 홈장 3连胜을 거두었다.

경기후 있는 소식공개회에서 연변룡정커시안팀 이기형 감독은 “선수들한테 오늘 무더운 날씨지만 많이 뛰여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뛰여준 것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심서련합팀을 상대로 사전 분석을 통해 전술에 변화를 주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선수들이 잘 리행해주었다. 홈장 3连胜을 계속 이어가도록 잘 준비하겠다.”며 연신 선수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다.

/ 김파기자

[포토 포커스]

‘원팀’, 축구는 11 명이 하는 스포츠



축구는 11 명이 하는 스포츠이다. 수비할 때나 공격할 때 각자의 위치에서 조직적으로 함께 움직여줘야만 팀은 시너지 효과를 낸다.

지난 11일, 연길시전민건강체육중심에서 진행된 2025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8라운드 경기에서 연변룡정커시안팀은 감독이 주문한 전술에 따라 ‘원팀’이 되어 움직여준 덕분에 올 시즌을 시작하며 영입에 ‘큰손’ 행보를 보인 심서련합팀을 상대로 2대0 완승을 거둘 수 있었다.

경기장을 삼없이 누빈 로장 김태연, 박세호를 비롯해 모든 선수들이 이날 박수받기에 충분한 경기력을 선보였다.

/ 김기혜기자 / 사진 김파기자

연길시 축구 유망주들, 국제대회서 성과 주렁주렁

국가 청소년축구 발전 전략을 깊이있게 관찰하고 연길시 축구선수들의 경기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 시키고자 대련축구유소년축구기지의 초청으로 연길시체육학교에서는 U-10, U-11, U-12 3개 연령단계 팀 총 80여명 선수들을 앞섬되어 선발, 파견하여 5월 1일부터 5일까지 대련에서 펼쳐진 2025년 대련 축구 JSS 국제 청소년축구 초청경기에 참가했다.

이번 대회는 규모가 성대했는바 중국, 한국, 로씨야 등 국가의 56개 우수한 청소년 축구팀이 참가했다. 6개 연령조별을 설치했고 참가 선수는 근 2,000명에 달했다. 강자들이 운집한 경기장에서 연길 축구 유망주들은 포만된 정신력으로 그라운드를 누볐으며 정교한 패스, 날카로운 돌파와 솟을 통하여 연길시체육학교 축구 유망주들의 완강한 분투정신과 단결협력의 전술 수량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치열한 각축전을 거쳐 연길시체육학교 각 연령대별 팀은 주렁진 성과를 거두었다.

U-10 대표팀은 14개 팀과의 AB조 대항에서 드높은 투지와 뛰어남 신제조건으로 두각을 나타내며 최종



준우승을 차지하였다.

U-10 대표팀 허은호는 눈부신 활약으로 ‘최우수선수’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U-11 대표팀은 20개 팀이 참가한 ABCD조 경기에서 안정된 경기 운영을 보이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U-12 대표팀은 16개 팀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4위에 올랐다.

U-12 대표팀 키퍼 김주형은 눈부신 선방으로 ‘최우수 키퍼’에 선

정됐다.

이번 대회 참가를 통해 연길시체육학교의 유소년 훈련 성과를 검증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의 강팀들과의 교류를 통해 후속 훈련을 위한 소중한 경험을 쌓았다. 앞으로도 연길시체육학교는 계속하여 축구인재 육성 체계 건설을 심화하면서 청소년축구사업의 발전을 위해 더욱 큰 기여를 할 계획이다.

/ 김기혜기자